

# “北 결핵 환자를 살리는 사랑의 약상자”



〈조용하게 사람을 죽이는 병. 감기의 모양으로 소리 없이 와서 전염시키는 심각한 병. 바로 결핵입니다. 결핵은 균입니다. 사람 몸속에 수십 년 잠복해 있다가 영양 상태가 나쁘거나 면역성이 약해졌을 때, 잠복했던 균은 개방성으로 바뀝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인간의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전염병 중 하나가 결핵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결핵이라는 질병에서 북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 유진벨 2012 상반기 방북 영상 중

크리스천 정신으로 북한의 결핵 퇴치를 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 대북 지원 단체인 유진벨 재단. 결핵 환자 중에서도 다제내성결핵 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재단 회장을 맡고 있는 인세반(Stephen W. Linton) 박사는 늘어나고 있는 북한의 다제내성결핵 환자에게 대한 한국 교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미국에서 막 돌아온 인 회장을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재단 사무실에서 만났다.

취재 이승연 | 사진 정종규 | 자료 제공 유진벨 재단



2012년 봄, 익을 전달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유진벨 재단.

1차 결핵 치료는 보통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약 값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85~90%가 완치된다. 반면 다제내성결핵은 1차 결핵약보다 1백50배나 비싸고 시간도 2년에서 2년 6개월이나 걸린다.

그래서 유진벨 재단이 다제내성결핵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군요.

**북한에 결핵 환자가 현재 몇 명 정도 되나요?**  
유엔에서 북한의 일반 결핵 환자들에게 약을 보내주고 있는데, 1년 동안 등록되는 환자 수가 약 10만 명 안팎으로 보고 있죠.

그렇죠. 전에는 1차 결핵 환자들에게도 약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엔에서 2010년부터 무료로 북한 결핵 환자들에게 일반 결핵약을 다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북한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일반 결핵 환자들의 수보다 다제내성결핵 환자가 몇 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다제내성결핵 환자가 되면 치료 비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중에서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은 얼마나 되죠?**  
우리의 추측으로는 1년 동안 5천 명 정도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제내성결핵은 일반 결핵과 어떻게 다른가요?**  
일부 결핵 환자들 중에는 1차 결핵약에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1차 결핵약에 내성이 생긴 결핵을 다제내성결핵 즉 '슈퍼결핵'이라고 하죠. 슈퍼박테리아에 전염된 사람은 1차 결핵 환자가 아니어도 다제내성결핵 환자가 됩니다.

**다제내성결핵 환자가 약을 복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3~4년 안에 사망합니다.

**다제내성결핵은 일반 결핵보다 치료가 더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다제내성결핵약은 먹기도 힘들고, 1차 결핵약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유엔에서는 북한에 50명분의 약만 보내고 있죠.

**유진벨 재단은 북한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나요?**

전에는 환자들의 가래를 받아서 한국에 가지고 왔습니다. 다제내성결핵을 완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대한결핵학회 시험실에서 가래를 분석하여 결과가 나오면 유진벨 방북단이 각 환자에게 맞는 치료약을 전달함





평안남도 다제내성결핵 센터, 북한 의료진들.

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약을 받기까지는 6개월의 시간이 소요돼요. 진단 기간이 5~6개월 걸리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약을 기다리는 동안 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엑스퍼트라는 기계를 도입한건가요?**

진엑스퍼트는 최신행 진단 기구입니다. 두 시간 안에 결핵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할 수 있고, 내성의 유무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진단부터 치료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환자들을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대한결핵협회에 의뢰하고, 환자들을 관리합니다.

**치료 결과는 어떤가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다제내성결핵에 대한 인식도 부족해서 환자 관리도 제대로 안됐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틀이 잡혔습니다. 환자들은 약을 먹고 괜찮다 싶으면 끊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들도 약을 2년에서 2년 6개월 동안 먹어야 치료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북한 의료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북한 의료진의 정신을 높이셨던 어떤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북한 의료진들은 필요하면 자기 몸도 희생해야 한다는 정신이 있습니다. 화상 환자들에게 자기 살도 떼어 주고, 엑스레이 촬영 시 자분이 부족해서 방사능에 노출돼도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치료하고 있죠. 의사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전통이 강합니다.

생명에 대한 북한 의료진들의 정신이 살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유진벨 재단의 결핵 퇴치 사업도 뿌리를 내린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제내성결핵 센터를 쉽게 방문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유진벨 재단의 다제내성결핵 센터는 평양시, 남포시, 평안 남북도 6곳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 경색된 남북 관계로 유진벨 재단의 대북 지원 사업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요?**

약을 보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모품, 조립식 환자 병동 같은 자재를 보내려고 했지만 아직 승인이 안났어요.

**남북 관계의 경색된 국면 속에서도 남북한이 생명 살리는 일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북 지원 통로가 단절됐을 때도 우리는 승인을 얻고 약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통성 다제내성결핵 센터, 한 의료진이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에게 진단 시행을 전하고 있다.

대북 지원 사업은 남북 간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때문에 회장님께서도 남북 정치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Safty Zone(안전지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치와 결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선사업을 정부 지원으



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일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대북 지원 사업은 정치적 바람을 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크리스천들은 한국 사람이지만, 천국의 시민 된 자세를 갖고 정치적 초월하여 대북 지원 사업에 동참해야 합니다. 통일보다 더 큰 꿈을 품어야 하죠.

인세빈 회장은 한 언론을 통해 Safty Zone을 언급. "북한 주민들의 결핵을 진단하고 약을 보낼 수 있는 기지를 개성공단에 세워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결핵 퇴치 분야에서 남북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회장님께서 통일보다 더 큰 꿈이 있다면요?**

세계 복음화도 될 수 있겠죠. 예수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를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이념을 초월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도 어떤 경우에는 너무 정치 바람을 타는 것 같아요.

**작금의 한국 교회들은 교파주의, 개교회주의가 강하다 보니 대북 지원 사업에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자선사업은 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갈수록 노인, 장애인, 고아와 과부 등 소외된 이웃들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정치에서도 진보든 보수든 관계없이 그 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그런 흐름에서 예외인 곳 중 하나가 유진벨 재단입니다. 이유는 북한의 결핵 환자들은 개개인의 사랑의 손길이 없으면 대책이 없어요, 죽습니다. 유엔에서도, 국제기구에서도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을 돕고 있지 않아요. 크리스천들은 관심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크리스천 각 개인들이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유진벨 재단이 결핵 퇴치 사업에 매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식량 지원도 했었습니다. 2년 동안 했는데, 1만 톤 이상을 보냈죠. 그런데 북한에서 결핵 퇴치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게든냐는 요청이 왔습니다. 식량은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결핵을 치료하는 기구들은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유진벨 재단이 시작했죠.

**회장님께서도 결핵을 알았으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 퇴치 사업에 발을 들여 놓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2년 결핵을



않았습니다. 초등학교와 대학원 때, 결핵은 안치 되지 않으면 오래 몸속에 숨었다가 면역력이 떨어 지면 재발되는 경우가 많은 무서운 병입니다.



동대원 다제내성결핵 센터. 치료가 끝난 환자의 악수를 나누는 인세반 회장.

**유진벨 재단이 대북 지원 사업을 하면서 중요시 하는 철학은 무엇인가요?**

유진벨 재단은 크리스천 단체입니다. 크리스천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웃들을 섬겨야 해요. 북한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유진벨 재단은 후원자들의 사랑의 손길이 북한에 닿을 수 있게 하는 통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서는 매년 북한을 방문하시는데, 북한에 변화의 흐름이 느껴지나요?**

모든 사회가 매일같이 변하죠. 북한도 마찬가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주민들도 열심히 일해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하고 다르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인세반 회장은 30년째 매해 두 번 이상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

**북한이 한국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졌나요?**  
한국뿐 아니라 세계에 대한 인식이 넓어졌죠. 30년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한다면 지금은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한국도 북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대북 지원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해마다 힘든 점이 달라지죠. 지원금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일을 다 못할 때도 있고, 북한에 접근이 안 돼서 힘이 있어도 도와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원'과 '접근'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요. 매년 그렇듯 남북 관계의 흐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운 편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축복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없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김으로써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북 지원 사업을 통해서 유진벨 재단이 북한 주민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우리는 그저 북한 주민들을 향한 후원자들의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용성 다제내성결핵 센터. 치료가 끝난 환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 교회가 유진벨 재단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북한에서 오늘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대인과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 한국 교회가 손을 내밀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동 다제내성결핵 센터. 환자들이 빙글 웃고 있다. 선감의 손길은 그들의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게 해준다.

**앞으로의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더, 한 환자 더. 그것뿐입니다. 1년에 다제내성결핵 환자가 5천 명이 발생한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은 역학적으로 보면 큰 도움이 안 돼요. 다만 늘어나는 다제내성결핵 환자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제내성결핵과 싸우려면 훨씬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야 합니다. 현재 유진벨 재단은 5%, 1년에 2백50명 정도의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제 소원은 고저, 딸 앞에 밝은 모습으로 나가는 게 소원입니다."

"이 약 잘 드셔야지 말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약 잘 먹고 건강하게 되어 딸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가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다제내성결핵은 사망과도 같다. 그러나 한 사람의 관심과 사랑은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힘이다. 생명, 그 이상의 존귀한 가치가 또 있을까? 복讎의 이웃들, 결핵으로 고통 받는 형제들에게 교회의 너른 품이 절실하다. 사랑의 약속지가 필요한 것이다. ❧

유진벨 재단의 2012년 상반기 방북 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터뷰 장면이 나온다. 북한 여성 결핵 환자: "네 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유진벨 재단 관계자: "자주 보지요?" "뭣 봅니까." "저런, 딸 이야기하니깐 눈물을 글썽거리시네..."

